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6

2012 <http://www.ucac.or.kr>

울산시립합창단 제76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로 나영수와 함께 하는

한국 합창 명곡

초청 지휘 _ 나 영 수



2012. 6. 12(화) 오후 8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_ 5천원

공연문의 | <http://www.ucac.or.kr> 275-9623~8

회관회원 30%,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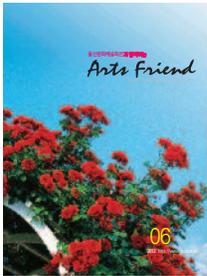
04



16



26



COVER STORY |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행복만발 Beautiful ulsan '제7회 울산대공원 장미 축제'가 오는 6월 1일 부터 7일까지 울산대공원 장미계곡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개막 특별공연인 시립예술단의 댄스뮤지컬 『LOVE & ROSE』, 퍼레이드 『장미요정과 함께 춤을』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시민들을 맞이 할 것이다.

Arts Friend 2012.6

Contents

The Monthly Magazine of Ulsan Culture & Art Center

- 04 ■ **시립예술단 공연**
교향악단 제157회 정기연주회 러시아의 낭만 「라흐마니노프」
합창단 제76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로 나영수와 함께하는 「한국합창명곡」
무용단 제29회 정기공연 「꽃길 바람에 피고지고」
청소년합창단 제25회 정기연주회 「거위의 꿈」
- 11 ■ **기획공연**
11시 모닝콘서트 「Carmen 갈라콘서트」
- 12 ■ **장미축제 특별공연**
댄스뮤지컬 「LOVE & ROSE」
- 15 ■ **예술을 말하다**
가와사키 심포니홀
오페라의 역사 II
김옥성 작, 김영규 편곡의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뒤러의 「자화상」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빛내는 숨은 주역들 「하우스 가이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찾아가는 예술단」
- 30 ■ **UCAC는 지금**
톡! 톡! 톡!
NOTICE
- 32 ■ **6월의 공연 · 전시**
공연 · 전시 가이드
6월의 공연 · 전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6월호 | 통권 제155호

- 발행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413-13)
T. 052)226-8241 홈페이지 http://www.ucac.or.kr
- 발행인 / 과상희 ●편집인 / 안종철
- 기획·편집 / 김현욱, 박용운, 박영진, 권혁민, 김내영
- 디자인·제작 / 동방디앤피 T. 052)266-8500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57회 정기연주회]

러시아의 낭만 라흐마니노프

울산시립교향악단
2012. 6. 29(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금노상 (대전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협연 피아노 서혜경
입장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 피아노 서혜경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제157회 정기연주회

차이콥스키의 서정성을 이어받은 '라흐마니노프'

세르게이 바실리에비치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v, 1873~1943)는 러시아계 미국인 작곡가, 피아노 연주가이자 지휘자이다. 9세 때 페테르스부르크 음악원에 입학하였으며, 3년 뒤에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하였다. 1905~1906년 모스크바 황실 극장 지휘자를 거쳐 미국 및 유럽 연주 여행을 하였다. 작곡가로서의 명성은 뒤늦게 얻게 되었지만, 그의 피아노 연주가로서의 기량은 널리 알려져 주목을 끌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작품을 직접 연주했다. 전설적인 기교와 13도의 음정까지도 연주해 낼 수 있을 만큼 컸던 손 등에 힘입어, 그는 당대 가장 위대한 피아노 연주가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번 연주에서는 교향곡1번 작곡 이후 평론가들의 혹평에 좌절하였지만 이 곡으로써 글링카 상의 영예까지 안게 해 준 교향곡 2번이 연주된다. 특히, 3악장의 서정적인 선율은 영국 가수 에릭 카르멘의 'All by my self', 셸렌 디옹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등에 사용되었으며, 이 외에도 각종 드라마, 영화 음악 등에 사용되었고, 특히,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로 큰 인기를 누렸다.

대전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금노상'과

MBC인기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감동,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의 환상적 만남

지휘자 금노상은 오스트리아 톤 퀸스틀러, 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케도니아 오케스트라 등 유럽 교향악단과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하였다. 1989년부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만 5년이 넘는 재임 기간을 통하여 광주시향을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도약 발전시킨 평가를 받았으며 1994년부터 10년 동안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인천시향을 4관 편성의 관현악단으로 확대하여 R.스트라우스, 구스타프 말러,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등 대편성의 새로운 작품들을 소개했으며 부르크너 교향곡 등을 한국 초연하였으며, 2006년에 또다시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를 맡아 새로운 레파토리와 일본공연 등을 통하여 광주시립교향악단을 재도약시키는 등 국내 교향악단 발전을 위해 정진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휘자중 한사람으로, 2011년 대전시립교향악단 제7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여 대전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은



9세에 데뷔하여 한국 국립 교향악단과 협연을 하였으며 약관 20세의 나이에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수여 받았다. 또한 국제 음악계에 이름을 알린 첫 한국인 중 한 명으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피츠버그, 찰스턴, 슈피터 심포니, 독일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심포니, 러시아 모스크바 필하모닉, 상트 페테르부르크 심포니, 영국의 런던 필하모닉, 로열 필하모닉, 일본동경 국립 교향악단, 중국 상하이 필하모닉, 콜롬비아 국립 교향악단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을 하였고 리카르도 무티, 샤를 뒤투아, 알렉산더 드미트리예프, 드미트리 키타옌코, 프란츠 벨저 뫼스트, 파벨 코간, 헨스 니가드, 파올로 움니 등 수많은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기도 하였다. 대전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금노상과 피아니스트 서혜경의 무대는 2011년 대전시향의 서울 예술의 전당 단독 무대를 통해 청중들에게 최고의 갈채를 받았으며, 이번 6월 29일 울산시향의 제157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그 때의 감동을 울산시민들에게도 전달하기를 기원한다.

글 | 최연수(울산시립교향악단 단무장)

PROGRAM

- 글링카 (Mikhail Glinka, 1804 ~1857 러시아)
 -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Rouslan and Ludmila Overture
- 라흐마니노프 (Rachmaninov, 1873 ~ 1943 러시아)
 -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작품 43
Rahpsody on a theme of Paganini, OP.43
- 라흐마니노프 (Rachmaninov, 1873 ~ 1943 러시아)
 - 교향곡 제2번 e단조 작품 27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제1악장 Largo - Allegro moderato - Moderato
제2악장 Allegro molto
제3악장 Adagio
제4악장 Allegro vivace



[울산시립합창단 제76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로 나영수와 함께하는 한국합창명곡

울 산 시 립 합 창 단
2012. 6. 12(화)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 휘 나영수
입장료 전석 5,000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2012년 세 번째 정기연주회로 마련되는 울산시립합창단 제76회 정기연주회는 국립합창단 초대, 3대, 7대 단장 겸 예술감독, 국립오페라 합창단 음악감독, 솔리스트 앙상블 지휘자, 울산시립합창단 제4대 지휘자를 역임하였고, 현재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한국 합창계의 산증인으로 추대 받으며 한국 합창계를 대표하는 나영수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한국 합창의 시대별 명곡들을 선곡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춘 연주기법과 풍부한 음악적 해석을 통해 펼쳐질 아름다운 소리의 향연으로 뷔페의 다채로운 음식들이 우리의 식탐을 자극하듯 6월의 장미가 꽃봉오리를 터트리듯 청각만이 아닌 우리의 오감을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합창음악의 우수성과 함께 한국합창명곡 반열에 오른 '울산의 노래'를 연주함으로써 한국 합창역사에 기록될 울산의 노래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의미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울산시립합창단 제76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로 나영수와 함께 하는 '한국합창명곡'을 통해 합창의 묘미와 더불어 마에스트로의 카리스마가 묻어나는 환상의 하모니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 김성민(울산시립합창단 단무장)



나영수

지휘자 나영수는 "아마추어 수준의 한국합창을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산 증인으로 합창을 가장 성악적으로 다루는 지휘자"라는 찬사가 따라 다닌다.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석좌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의 명예교수이다.

그는 1963년 서울민속가무단 지휘자로 부임하면서 지휘자로서의 역량을 쌓기 시작하였고, 1973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 전문합창단의 효시인 국립합창단 초대 단장 겸 상임지휘자로, 1985년부터 1992년까지 3대 단장 겸 상임지휘자로 국립합창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국에 전문합창단 시대를 연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국립합창단의 초대 단장으로서 창단연주회의 모든 작품을 한국합창곡만으로 순서를 마련한 그의 열정은 창작합창곡의 위촉, 대학생작품발표회, 한국적 창법의 개발과 보급으로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빛을 주는 존재로서 한국 창작합창곡 및 한국적창법 개발자라고도 불려진다. 특히 J. S. Bach의 마태 수난곡 등의 명작들을 번역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했고, 크고 작은 500여곡의 창작곡을 개발, 초연하여 "한국 합창예술의 르네상스를 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서울시립합창단을 위시하여 성남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등의 지휘자였을 뿐 아니라 1984년부터 국내 정상급 남성성악가들로 이루어진 솔리스트앙상블을 지휘했고, 1976년 음악 팬클럽에서 주는 '이 달의 음악상'을 수상 했으며 1988년 <월간음악>의 '올해의 음악가상', 1995년 한국합창총연합회의 '한국 합창대상', 1995년 한국뮤지컬협회의 '한국 뮤지컬 대상' 한양대학교의 1999년 '백남 학술상' 2002년 '제16회 한국예총 예술문화대상'을 수상했다. 2008년 6월부터 3년간 세 번째로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정기연주회와 지방공연, 오페라공연 등, 그리고 한국합창곡 개발, 지휘자 양성 프로그램 등으로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발전 및 합창음악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고, 해외연주회를 통한 한국합창음악의 세계화 추진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PROGRAM

■ 민요합창

- 1932년 당달구 | 조인택 시, 김동진 곡
- 1947년 새야 새야 파랑새야 | 채동선 곡
- 1974년 뱃노래(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 김희조 곡

■ 여성합창

- 1982년 소요유(逍遙遊) | 장곡교 시, 이영조 곡
- 2002년 제비꽃 | 김석규 시, 김준범 곡
- 2011년 성공시대 | 문정희 시, 오병희 곡

■ 남성합창

- 2000년 동백섬 | 김종경 시, 최영철 곡
- 2010년 된장 | 탁계석 시, 정덕기 곡
- 2010년 희망은 아름답다 | 정호승 시, 이선택 곡

■ 울산의 노래

- 2000년 사랑합니다 | 정일근 시, 이지상 곡
- 2002년 가지산 역사바람 | 이자영 시, 이수인 곡
- 2009년 여름(칸타타 '푸른편지' 중에서) | 서덕출 시, 김기영 곡
- 휴 식
- 2002년 칸타타 '울산 내 사랑' 중에서 | 이강백 대본, 이건용 곡
- 4번 고래 떼의 합창
- 8번 여기 사람들 있네
- 2004년 칸타타 '외솔의 노래' 중에서 | 박중해 대본, 김기영 곡
- 9번 사랑의 씨앗을 심으리!
- 10번 거리의 등불되어
- 11번 한글, 위대한 유산이여!

[울산시립무용단 제29회 정기공연]

꽃길 바람에 피고지고...

울산시립무용단
2012. 6. 8(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안무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입장료 R석/10,000원, S석/7,000원, A석5,000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





PROGRAM

■ 프롤로그 : 바람에 피고지고

아름다운 동화 풍경에서 눈이 내리면 어린 여울이 집안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 여울의 친구들이 눈을 보며 행복해 하고 가족들도 행복해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밝고 행복한 무대는 하늘에 먹구름이 일렁이고 폭풍우가 휘몰아 친다. 여울 엄마가 죽는다. 여울은 감당 할 수 없는 슬픔으로 아파하고 마을 사람들이 여울의 엄마의 상여를 메고 구천으로 길 떠난다.

- 1장 : 가여운 꽃
- 2장 : 길은 어느메 있는노
- 3장 : 꽃잎은 달빛에 흩날리고
- 4장 : 꽃길을 가려하나
- 5장 : 연분이 피어나네
- 6장 : 꽃길 바람에 피고

■ 에필로그 : 바람에 피고 지는 꽃길

여울이 마루와 사랑의 꽃을 피운다. 여울과 너울의 삼각 갈등이 펼쳐진다. 여울과 너울이 한 인물이며 인간 삶의 양면성이 있음을 표현한다. 꽃길 바람에 피고 지는 여인의 삶이다.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경쾌한 리듬 & 화려한 춤사위, 그리고 러브 판타지를 더한 새로운 흥미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화려하고 신명나는 춤판, 교육적인 전통문화의 대향연, 풍성한 국악관현악의 아름다운 선율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즐거움을 선사하는 울산시립무용단이 6월 8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9회 정기공연 『꽃길 바람에 피고 지고』를 무대에 올립니다. 『꽃길 바람에 피고 지고』는 2009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울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꽃신'의 2012년 버전으로, 더욱 짜임 있는 구성과 탄탄한 스토리 전개, 경쾌한 리듬과 어우러지는 섬세한 안무에 판타지 요소를 더해 새로운 감동과 재미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김상덕 울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안무자는 "꽃길은 여인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전래동화인 '콩쥐팥쥐'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인간 내부에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아름다움과 추함, 높고 낮음 등 모순된 이중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고 이번 작품을 소개합니다.

글 | 신박범(울산시립무용단 단무장)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제25회 정기연주회]

거위의 꿈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2012. 6. 19(화) 19:30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지휘 한성용
찬조출연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실내악 3중주
소프라노 김지혜, 김송하
입장료 전석 1천원

풀잎과 같이 신선하고 맑고 고운 소리로서 늘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이 오는 6월 19일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거위의 꿈” 제목으로 정기연주회를 가집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전체 합창만의 프로그램이 아닌 독창과 중창 그리고 합창의 연주형태로 신선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다가옵니다. 연주회의 제목인 “거위의 꿈”은 원래 가수 인순이의 노래인데 이 연주회의 프로그램 중 마지막 하이라이트 곡이기도 하지만 가사의 내용이 꿈을 가지고 날아오르는 희망을 잃지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연주회를 통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고와 희망을 심겨줄 수 있는 연주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 한국 가사와 멜로디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정은지, 전하람 단원의 아름다운 하모니의 2중창과 안미영, 김주애, 강수진, 정은송 단원들의 독창이 준비되어 있

으며, 찬조출연으로 청소년교향악단의 곽수민(바이올린), 우정빈(첼로)와 피아노가 어우러진 실내악 3중주가 합창 연주회에서의 또 다른 맛을 분위기를 장식합니다. 또한 청소년합창단 단원이지만 피아노의 솜씨가 뛰어난 오세봄 단원이 베토벤 소나타 4번을 연주하기도 하며 특별히 후배들의 연주회를 더 빛내주기 위해 청소년합창단원을 지냈던 선배 김지혜(계명대), 김송하(서울대) 전, 단원이 출연해 이제는 한층 높아진 실력을 보여주는 독창 순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한성용 지휘자와 모두가 출연하는 합창으로는 거위의 꿈 외 2곡을 재미와 흥겨움으로 또 가사에서 얻어지는 꿈과 희망을 노래하면서 연주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6월의 푸르른 밤에 청소년 단원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하모니 가운데 감미롭고 따뜻한 노랫말 가사에 젖어보시면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글 | 김수형(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단무장)

[11시 모닝콘서트]

Carmen 갈라콘서트



▲ 피아노 황다운
▼ 소프라노 김수현



▲ 해설 김윤희
▼ 테너 정중순



▲ 메조소프라노 나희영



6.28(목)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이달 28일 오전 11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오페라 '카르멘'의 갈라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주최하고 아델라오페라단이 주관하는 본 공연은 울산 문화예술회관이 기획한 네 번째 모닝 콘서트로 오페라 '카르멘'을 함축적으로 감상 할 수 있는 공연이다.

오페라 '카르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으로 뜨거운 열정과 격렬함, 그리고 뛰어난 음악적 완성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초연(1875년) 당시에는 주인공의 파격적인 캐릭터와 신분, 살인으로 종결되는 결말, 집시 등의 하류계층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등으로 냉대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페인의 색채가 물씬 풍기는 열정적인 이야기 전개와 뛰어난 음악들이 오히려 카르멘만의 차별점이 되어 작품 속에 숨은 아름다움이 어우러지며 가장 인기를 모으는 오페라가 되었다.

오페라 사상 가장 강렬하고 인상적인 캐릭터를 가진 '카르멘' 역은 메조소프라노 나희영 이 캐스팅 되었다. 그 외에 테너 정중순(돈 호세 역), 바리톤 권지훈(에스카미요 역), 소프라노 김수현(미카엘라 역)과 피아니스트 황다운이 뛰어난 선율과 섬세한 연기로 음악적 수준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 공연에서는 카르멘 서곡(Overture)을 시작으로 '하바네라(Habanera)', '어머니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Parle-moi de ma mere!)', '세빌리아의 성 근처에서 (Pres des ramparts de Seville)', '투우사의 노래 (Chanson du Treador)', '꽃 노래 (Air de fleur)',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Je dis que rien ne m'epouvante)', '카르멘, 그대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Si tu m'aimes, Carmen)', '당신이군요? 그렇소,나요! (C'est toi? C'est moi)'등 오페라 카르멘의 대표적이고 잘 알려진 아리아와 이중창을 들어볼 수 있다. 또한 노래와 더불어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은 관객들이 오페라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글 | 박용운(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LOVE & ROSE

댄스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댄스뮤지컬 『LOVE & ROSE』

제7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특별공연으로 오는 6월 1일, 6월 2일 오후 8시 20분 장미계곡 야외무대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장미백작으로 특별출연하는 탤런트 최주봉과 울산시립무용단, 합창단, 남구구립교향악단이 펼치는 아름다운 공연은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객석에 선사한다.

또한 공연 전 장미요정과 장미기사단이 펼치는 퍼레이드 『장미요정과 함께 춤을!』은 6월 1일, 6월 2일 오후 7시 20분에 펼쳐진다.

댄스뮤지컬 『LOVE&ROSE』는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작 “장미전쟁”과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하여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야기를 화려한 춤과 아름다운 노래 등으로 제작하는 댄스뮤지컬!

『LOVE&ROSE』는 붉은 장미가 가문의 상징인 장미정원의 나라 몬터규가(家)의 로미오와 하얀 장미가 가문의 상징인 캐플렛가(家)의 줄리엣의 사랑이야기가 장미백작의 해설과 진행으로 공연 서막이 시작되며, 로미오로 상징되는 장미기사단과 줄리엣으로 상징되는 장미요정의 대립 등 아름다운선율, 화려한 춤으로 펼쳐진다.

글 | 박용하(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주무관)





댄스뮤지컬 「LOVE & ROSE」

일시 | 6월 1일(금) ~ 6월 2일(토) 오후 8시 20분

장소 | 울산대공원 장미계곡 야외무대

출연 | 특별출연 최주봉, 울산시립무용단, 울산시립합창단,
남구 구립교향악단

퍼레이드 「장미요정과 함께 춤을」

일시 | 6월 1일(금) ~ 6월 2일(토) 오후 7시 20분

장소 | 울산대공원 장미계곡 일원

출연 | 마칭밴드, 장미요정, 장미기사단, 빼에로, 저글링, 인형캐릭터, 키다리아저씨, 로보캡 등

NOISES OFF

by Michael Frayn

노이즈 오프

뒤죽박죽 황당 백스테이지 실황극

★★★★★

영국 Evening Standard Theatre Awards 'Best Comedy' 수상
미국 Tony Awards 'Best Play' 수상

“공연, 세 번! 말아먹었습니다”



2012. 7. 6(금) ~ 7(토)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원작 마이클 프레이인(Michael Frayn) | 번역 김승완 | 연출 백원길 | 출연 서현철 황정민 안신우 장현성 전배수 김동곤 백원길 김로사 정의욱 김광덕 이주원 방현숙 김나미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제작 (주)적도

예매 T. 052)275-9623 www.ucac.or.kr

Arts Friend

Part.1 예술을 말하다

가와사키 심포니 홀

오페라의 역사 II

김옥성 작, 김영규 편곡의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뒤러의 「자화상」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빛내는 숨은 주역들 「하우스 가이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찾아가는 예술단」

Part.2 UCAC는 지금

톡! 톡! 톡!

NOTICE

Part.3 6월의 공연·전시

공연·전시 가이드

6월의 공연·전시



가와사키 심포니 홀

글 | 이장직

중앙일보 음악전문 기자를 역임하고, 『위기의 아트센터』, 『레인보우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월간 객석> 선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Kawasaki

Symphony Hall





도쿄(東京)역에서 전철로 17분, 요코하마(橫濱)에서 기차로 10분, 하네다 공항에서 자동차로 7분 걸리는 일본의 수도권 위성도시 가와사키(川崎)는 일본 프로야구 마이니치 오리온스의 홈구장이 있는 곳이다. 오사카 다음으로 재일동포가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경기도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가와사키와 부천은 수도와 교외의 항만 도시 사이에 끼어 있는 베드 타운 겸 공업 도시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가와사키의 별명은 ‘샌드위치’다. 도쿄만으로 흘러드는 다마(多摩)강을 사이에 두고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남북으로 길쭉하게 끼인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010년 현재 인구는 142만명. 수원(110만명)보다 조금 많다.

도시바(東芝)와 일본강관(NKK), 미즈비시푸소 운수, 쇼와 덴코, 파이오니아, 니신 제분, 도쿄 가스, JX 니폰 오일, JFE 제철, TEPCO, 아지노모토 등의 본사, 공장, R&D 센터가 운집해 있는 중화학 공업도시다. 가나가와 과학 공원(KSP), 신가와사키 과학공원(KBIC), 테크노 허브 이노베이션 가와사키(THINK) 등 도시 전체가 신산업 개발을 위한 세 개의 과학 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해변을 따라 늘어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과 스모그로 도시 전체가 우중충한 잿빛으로 물들어있었다. 하지만 기름 냄새로 뒤범벅이 된 매캐한 공기는 사라지고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와사키가 무엇보다도 ‘음악 도시’를 표방한 것이 눈길을 끈다. 2004년 7월 JR 가와사키 역 서쪽 출구와 곧바로 연결되는 재개발 부지에 산뜻하게 들어선 가와사키 심포니홀(1997석)이 그 신호탄이다. 도시의 컨셉트를 경제적 풍요에서 정서적 풍요로 바뀌가는 과정에서 심포니홀 신축을 기폭제로 삼은 것이다.

가와사키 시는 1983년 콘서트홀 신축 계획을 발표한다. 1989년에 출범한 가와사키 ‘도시기반 설비공단’(현재는 도시재생기획)이 주도한 프로젝트다. 이 콘서트홀의 별명은 뮤지



(Muza)다. 언뜻 보기엔 ‘음악의 광장(Music Plaza)’라는 뜻의 일본식 신조어 같지만 사실은 음악을 뜻하는 영어 ‘뮤직’에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또는 ‘극장’라는 뜻의 일본어 자(座)를 합친 것이다. 일본의 전통 예능인 가부키 극장도 ‘가부키자’(歌舞伎座)라고 한다.

가와사키 심포니홀은 2004년 7월 1일 아키야마 가즈요시 지휘의 도쿄 심포니가 연주하는 말러의 ‘천인’ 교향곡 연주로 문을 열었다. 아베 다카오(阿部孝夫) 가와사키 시장은 심포니홀 앞 거리를 ‘음악의 거리’로 명명했다. 2004년은 가와사키가 시승격 80주년을 맞는 해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번듯한 공연장을 짓는 것은 일본에서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가와사키의 경우는 좀 다르다. 개관에 앞서 끈질긴 설득 끝에 일본에서 세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도쿄 심포니(東京交響樂團, 1946년 창단, 음악감독 위베르수당)를 상주(常住) 단체로 영입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없는 하드웨어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쿄 심포니는 도쿄 신주쿠(新宿)에 있는 연습실을 아마추어 교향악단, 합창단을 위해 임대 연습실로 내놓았다. TSO가 가와사키행을 결심한 것은 ‘빌딩 연습실’로는 TSO 고유의 사운드를 만들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가와사키 심포니홀은 도쿄 산토리홀, 도쿄예술극장, LA 디즈니 콘서트홀을 설계한 나가타(永田)음향이 컨설턴트를 맡은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이다. 디즈니홀, 베를린 필하모니 같은 포도밭 스타일의 객석 배치가 특징이다. 2억7000만엔(약27억원)짜리 스위트제 파이프오르간이 들어섰고, 콘서트홀 외에 가변형 객석 구조의 시민 교류실(150석)과 함께 회의실, 연습실, 기획 전시실도 갖췄다.

로비로 연결되는 별도의 27층짜리 빌딩 ‘가와사키 센트럴 타워’(높이 130m)에는 쇼핑 센터와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고급 레스토랑도 입주해 있다. 가와사키 역과 이들 빌딩은 보도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무척 편리하다. 콘서트홀이 기차 레일과 불과 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갈 때 진동과 소음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였다. 건물 지하에 고무 패달을 덧댄 것도 이 때문이다. 콘서트홀 내부 설계과정에서 애초에 상주 교향악단으로 영입하려고 했던 요미우리 니폰 교향악단의 조언을 많이 참조했다. 뛰어난 건축 음향 덕분에 사이먼 래틀 지휘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리카르도 무티 지휘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 무대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다녀갔다.

도쿄에는 창단한 지 30년이 넘는 교향악단만 해도 도쿄 심포니를 비롯해 도쿄 필하모닉, NHK 교향악단, 재팬 필하모닉, 요미우리 니폰 심포니, 도쿄도 심포니, 뉴재팬 필하모닉 등 7개나 된다. 이에 반해 심포니 전용홀은 산토리홀, 도쿄예술극장, 오페라시티 콘서트홀 등 3개뿐이다. 1997년 스미다(墨田) 트리포니 홀과 상주 계약을 한 뉴재팬 필하모닉만 전용 홀을 갖고 있다.

도쿄 심포니는 가와사키 심포니홀에서 정기 연주회 5회, 공동 기획공연인 ‘명곡 전집’ 시리즈 10회 등 연간 20여회의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전용 연습실과 사무국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무대 연습도 마음껏 할 수 있다. 교향악단은 세계적인 연주 공간에 상주하면서 연습실과 무대 등 부대시설을 마



음껏 이용할 수 있고, 가와사키 시는 저명한 교향악단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시립 교향악단 창단에 따르는 예산 확보 없이도 시민들에게 고급스러운 음악을 선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종의 ‘윈윈 게임’인 셈이다. 2005년 여름부터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9개 교향악단이 12명의 지휘자와 함께 출연하는 ‘뮤자 가와사키 여름 축제’를 열고 있다. 낮에는 인근 직장인들을 위한 런치 타임 콘서트도 열고 있다.

도쿄 심포니가 2011년 7월에 발표한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8번 음반도 2010년 11월 가와사키 심포니 홀에서 녹음한 것이다. NF 레이블에서 나온 이 음반은 일본 음악펜클럽 주최 제22회 음반상 시상식에서 최고의 클래식 음반상과 최고의 오디오 녹음상을 수상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도호쿠(동북) 지방의 태평양 연안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진앙으로부터 300km나 떨어져 있는 가와사키 심포니 홀까지 큰 타격을 입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면서 건축 음향에서 필수적인 지붕의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고 지진이나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뿌린 물 때문에 건물 내부가 온통 물에 잠겼다. 다행히도 낮시간 대라 음악당 내부에는 관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리허설 중이던 오르가니스트가 물벼락을 피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을 뿐이다. 도호쿠 지진의 여파로 수도권 지역에서 건물이 손상을 입은 경우는 가와사키 심포니 홀이 거의 유일하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은 가와사키 심포니 홀에 상주하는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다. 지진의 여파로 20여회의 공연을 취소했다. 개보수 공사 후 이르면 2013년 4월이나 재개관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여기 저기 옮겨다니면서 정기 연주회를 소화해 내고 있다. 일본의 교향악단은 연주 회수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연주를 취소하면 오케스트라의 존폐 문제와도 직결된다.

하루 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도쿄 심포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성금 모금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열렸다. 2011년 7월 잘츠부르크에서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 등이 출연해 자선음악회를 마련했다. 1만 5800 유로의 성금이 마련됐다. 잘츠부르크 시는 여기에 돈을 더 보태 20만 유로(약 3억원)를 일본재단을 통해 가와사키 시에 전달했다. 잘츠부르크는 가와사키와 자매 결연 도시다. 가와사키 심포니 홀의 공연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 음악은 잘츠부르크 대성당의 종소리를 녹음한 것이다. 2011년 6월 11일에는 런던에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성금 마련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 같은 해 4월 19일에는 베를린에서 작곡가 호소가와 도시오, 헬무트 라헨만이 자선 음악회를 마련했다. 도쿄 심포니는 지진의 피해 당사자이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지진 난민들을 돕고 있다. 정기 연주회 때 인터미션에 단원들이 모금함을 들고 로비로 나온다. 일본 적십자사의 도움으로 실내악 공연도 열었다. 음악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오페라의 역사 II

글 |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 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무용과 오페라) 발행인 겸 작가로 활동 중이다.



“오페라가 탄생 초기에 왕족이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궁에서 결혼식이나 대관식 때 매우 화려하고 사치스런 오페라를 공연하면서 오페라 속의 영웅이나 신을 자신들과 동일 시 하는 것으로 관객들에게 신분과 부를 과시했기 때문이다.

상업 목적의 오페라 극장이 생기면서 오페라가 역동적으로 발전

● 하지만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오페라 극장이 생기면서 이러한 양상은 달라진다.

1637년 베니스에서 ‘산 카시아노(San Cassiano)’ 극장이 문을 열어 F.마넬리(F.Manelli)의 오페라 ‘안드로메다(Andromeda)’를 처음 공연했고 연이어 파두아 등지에서 속속 오페라 극장이 생겨, 오페라 대중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 이제는 입장료를 낸 관객들이 관람을 하기 때문에 귀족과 평민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개인 소유의 오페라 극장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당시로는 최신의 무대장비를 도입하고 화려한 볼거리, 흥미 위주의 내용 등으로 엄청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오페라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페라의 주제와 내용은 자유로워졌다. 그동안에는 금기시되기도 하던 오감을 자극하는 배신, 죽음, 음모, 살인 등의 비종교적인 내용이 무대 위에서 공공연히 공연되기 시작한 것이다.

로마교황청의 여성 출연금지로 카스트라토의 전성기 도래

● 이런 상황이 로마교황청으로서는 달가울 리가 없었다. 1588년 교황의 칙서에서는 에덴동산의 원죄를 빚대

어 여자가 무대에 서면 죄악을 생산하는 것임으로 절대 안 된다고 선언했다. 교황이 지배하는 유럽의 지역에서는 여자의 무대 출연이 금지되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극장공연 자체가 성서에 반하는 비도덕적이며 죄악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공격하면서 1701년 로마 교황청에서는 오페라 및 모든 세속적인 공연에 대해 금지령을 내리지만 이미 귀족과 시민의 오락거리이자 중요한 여흥이 되어버린 오페라를 막을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1710년 금지령이 다시 풀린다.

로마교황청이 여성의 무대진출을 금지시키자, 로마는 여성의 성부를 부르는 카스트라토(거세된 남성 성악가)의 천국이 되었다.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복합된 소리, 트럼펫처럼 힘차고 플룻처럼 청아한 소리를 지닌 카스트라토는 천사의 목소리를 연상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감각적인 쾌감을 맛보게 하여 관객들을 매혹시켰다.

카스트라토의 종말이 근대 오페라의 시발점

● 18세기 후반으로 오면 관객들은 이런 카스트라토의 기교위주의 노래에 싫증을 내고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노래를 원하게 된다. 1799년 나폴레옹 군대가 시칠리아 섬을 점령하면서 카스트라토 양성학교를 폐쇄시킨다. 1600



년부터 1750년 사이에 작곡된 오페라를 통상적으로 바로크 오페라라고 한다.

바로크(‘찌그리진 진주’라는 뜻의 포르투갈어)는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 비극적 내용의 정통 가극)의 시대이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오페라 형식이다.

오페라 세리아는 아리아(aria, 노래)와 레치타티보(recitativo, 음을 붙여 노래하듯 부르는 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재는 주로 신화나 영웅담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합창이나 중창의 역할은 아주 미미하며 카스트라토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기교 위주의 오페라를 일컫는다. 이 바로크 오페라 시대부터 이태리 오페라는 유럽 각국으로 퍼져 나가 자국의 특성을 살리는 각국의 오페라들이 발전하게 된다.

17세기 말 작곡가 A.스카를라티는 바로크 오페라 작곡에 새로운 방식을 몇 가지 도입한다. 아리아를 다카포(‘처음부터 다시’라는 뜻, A-B-A 형식)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아리아 속의 멜로디를 되풀이 하여 청중들이 공연 중에 아리아를 익혀서 생활에서도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오페라가 인기를 모으는데 많은 도움을 준 방식이다. 오페라 반주들도 현악기군을 강화시켜 아리아와 동등한 역할을 할 정도로 만든다.



오페라 정화운동으로 새로운 오페라 장르 태동

● 하지만 어느 예술이든 그 정점을 지나면 모든 요소들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탈리아에서 오페라는 지나치게 화려한 무대, 황당한 내용의 기교만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오페라로 흐르게 된다. 그러면서 오페라 정화운동이 시작된다. 극단적 스토리와 과도한 무대장치 금지 그리고 내용도 누구나 공감하는 정상적인 스토리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여기에 대본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점에서 큰 기여를 한 이가 시인이며 극작가, 대본가인 P. 메타스타시오(P. Metastasio)이다.

그의 대표적인 대본들은 A.칼다라(A. Caldara)부터 모차르트(W.A. Mozart)에 이르기까지 바로크와 고전주의 초기 많은 작곡가들이 사용하였다. 그의 대본이 위대한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본 속에 문학작품과 버금가는 품격을 불어넣으면서 내용상으로는 오페라 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오페라 대본은 소프라노와 카스트라티토를 위한 기교 중심의 노래가 주류를 이루어서 결국 한계를 나타내게 된다. 이런 문제점은 글룩의 오페라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해결된다. 이렇게 내용이 건전한 오페라가 한창 무대를 장식하고 있을 즈음 오페라 부파 혹은 코믹오페라 장르가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한다.

김옥성 작사, 김영규 편곡의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글 | 김수연

KBS울산 라디오 「러브 클래식」 진행자, 라디오·TV 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종종 ‘겨레의 음악’ 혹은 ‘민족의 음악’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공연들을 보면 북녘의 노래와 음악들을 소개한다.

그런데 피를 나눈 한민족의 정서가 통해서 일까? 이 노래와 음악들이 국내에 연주된 적 없는 생소한 곡들일지라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전통 민요의 신나는 장단이 느껴져 절로 흥이 난다. 김옥성 작, 김영규 편곡의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란 작품도 바로 그런 곡이다.

사실 북한식의 교향악은 민족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적인 예술작품이 대부분이다. 청중이 쉽게 감동할 수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리듬이나 선율을 그대로 살린 멜로디를 중심으로 해서 10분이 넘지 않는 짙막한 작품을 현대식으로 만든 것이 북한식의 교향악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들어보면 분명히 클래식이지만 국악기가 자연스럽게 서양악기와 섞이고 있고 그 속

에서 국악의 리듬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내가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접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2001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민족 리포트>라는 다큐 프로그램이 계기가 됐다. ‘나의 음악, 나의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김홍재 지휘자를 소개했는데 지금이야 울산시향의 사랑받는 마에스트로로 김홍재 지휘자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 김홍재 지휘자는 일본에서 최고의 지휘자로 성장하는 동안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재일 조선인이라는 굴레를 과감히 떨치고 일본 최정상급의 지휘자가 된 그의 인생 이야기에 흠뻑 빠졌고 특히 조국이 자신에게 준 사랑을 음악으로 돌려주고 싶어 조선관현악을 즐겨 연주한다는 말에 자꾸 마음이 갔다. 그래서 구해서 듣게 된 김홍재 지휘자의 2장의 조선관현악 CD에서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처음 만나게 됐다.

그리고 이 곡을 라이브로 듣게 된 것은 2008년 울산



시향의 정기연주회를 통해서었는데 김홍재 지휘자의 위트 있으면서도 유려하게 흐르는 선율로 아주 기분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보면 김홍재 지휘자와 이 작품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는 인연이 깊은 것 같다. 1978년 일본에서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의해 이 작품을 초연한 것도 김홍재 지휘자였고.. 또 우리나라 초연도 국악으로는 2007년 국립 국악관현악단과 관현악으로는 2008년 울산시립교향악단과 김홍재 지휘자가 초연을 했으니 말이다.

사실 북한에서도 이 작품은 남다른 작품으로 기록돼 있다. 북한 관현악 역사상 처음으로 앙코르를 받았던 작품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또 북한에서 당대 최고의 지휘자들만이 이 작품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지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이 작품이 북한 관현악 음악의 최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기에 지금 북한을 넘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어디에서 연주되든 이 작품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는 민요 '풍년가'를 소재로 한 북한 공훈예술가 김영규(1927~1989)의 창작관현악곡이다. 원곡은 북한 인민예술가 김옥성(1916~1956)이 작곡한 <관현악과 합창 - '청산리 벌에 풍년이 왔네'>인데 합창을 제외하고 새로이 관현악으로 편곡을 했다. 그리고 작품 속 '청산리'는 1960년대 북한의 농업 부흥 정책 운동에 있어 가장 모범지역으로 선정된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지명으로 이 작품은 풍년을 맞은 청산리 농민들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곡이 나온 1973년 당시 북한은 악기개량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이 작품을 들어보면 서양악기와 북한 고유의 민족악기가 배합이 됐음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곡에는 징과 팽과리 등의 전통악기와 북한에서 '새납'이라 부르는 태평소를 개량한 악기 '장새납'이 쓰이고 있다. 현악기의 조용한 떨림과 하프의 부드러운 음을 타고 이른 아침 농촌의 풍경을 그림처럼 보여준다. 휘모리 장단에 민요 '풍년가'의 흥겨운 가락을 발전시키며 풍년의 기쁨을 생동감있게 그려낸다. 그리고 최고조에 오른 장새납 독주의 흐름으로 풍년을 맞이한 농부들의 긍지와 환희를 표현하며 폭발과도 같은 관현악으로 연주를 마치는데 그 일련의 선율들에서 행복감이 한껏 묻어난다. 이 곡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풍물 가락에서 연주되는 강한 소리의 우리 전통 악기들이 과연 서양악기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지나치게 음색이 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라. 6분여 연주되는 동안 전통 악기와 서양악기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오히려 우리 음악의 색채를 진하게 느끼게 하는 관현악법에 감탄하게 될 거다. 우리나라에서 이 곡이 연주될 때 태평소가 장새납 대신에 연주되지만 그래도 그 감동은 덜하지 않다. 힘있고 경쾌한 장새납의 음색, 서양악기들과의 예술적인 조화를 이루며 울리는 팽과리를 비롯한 전통악기들의 장단과 선율이 멋지게 어우러지며 흥을 돋우는 이 곡의 조화로움에서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읽는 건 무리일까.



1



2

뒤러의 자화상

글 |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남들과 구별되는 ‘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인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사실 아주 근대적인 현상이다.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가령 누군가의 자손, 어떤 동네의 사람, 어떤 인종, 어느 왕의 신민, 어떤 종교의 신자 같은 커다란 세계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개인의 개념이 등장했고, 개인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도 고대 로마 이후 다시 등장한다. 사진이 없던 시절 화가는 왕과 귀족, 성직자 등의 지배 계층의 모습을 초상화에 담았고, 시민사회가 형성된 이후에는 일반인의 초상화도 제작되었다. 초상화 중에는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도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기록 그림만은 아니다. 그림의 주제인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삶을 통찰하고, 자신의 내면을 읽어 이를 화폭에 담아내는 것, 그것은 예술가적 개성과 자아를 세상에 드러내는 기념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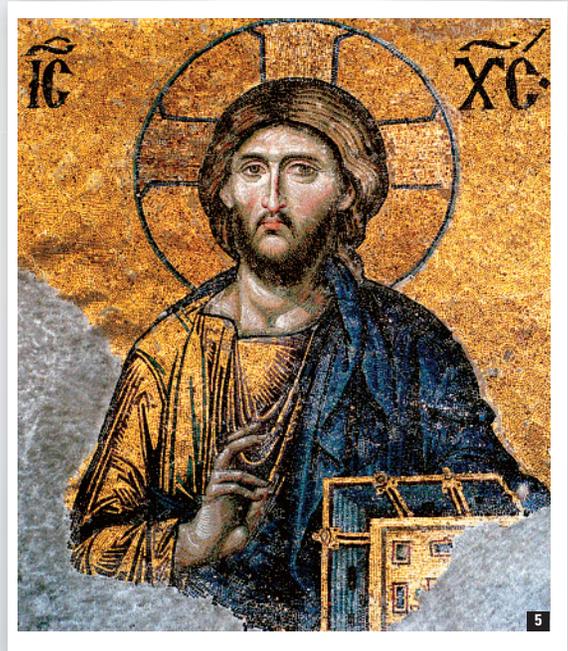
예술가의 자화상에 대한 논의에서 북유럽 르네상스의 거장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를 빼놓을 수 없다. 독일 뒤른베르크에서 금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금세공사 훈련을 받았지만,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볼게무트(Michael Wolgemut)의 문하에서 4년간 도제 교육을 받았다. 이후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

을 접했고, 결혼 후에는 북유럽 화가 최초로 르네상스의 본고장 이탈리아에 가기도 했다.

뒤러가 자화상을 그린 최초의 화가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모습, 혹은 예술가로서의 화가를 주제로 한 작품을 여러 점 제작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자신의 외양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가장 초기의 자화상은 불과 13세 때 그린 소묘인데, 이미 안정된 기교를 보여주어 화가로서의 그의 재능을 예고한다. 이후 여행 중 고향에 있는 약혼녀에게 보여주기 위해 고향집으로 보낸 그가 22세에 그린 두 번째 자화상은 그가 회화작품으로 남긴 최초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그는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약간은 수줍은 젊은이로 자신을 묘사했다. 손에 들고 있는 영경귀는 부부의 정절을 상징한다.

6년 뒤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그린 자화상에서는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예술가의 모습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여기에서 뒤러는 귀족에 버금갈 정도로 우아하고 화려하게 차려입었고, 자세도 훨씬 꼳꼳하며 화면 쪽을 바라보는 시선도 당당하다. 멀리 창문 밖으로는 멀리 알프스의 풍경이 보이는데, 이는 그가 르네상스의 중심지 중 한 곳인 베네치아에서



- 1 알브레히트 뒤러 「13세의 자화상」 1484
- 2 알브레히트 뒤러 「22세의 자화상」 1493
- 3 양피지에 유채 57x45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알브레히트 뒤러 「26세의 자화상」 1498
- 4 목판에 유채, 52x41cm,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알브레히트 뒤러 「28세의 자화상」 1500
- 5 목판에 유채, 67x49cm, 뮌헨 알테 피나코텍
그리스도의 모습, 모자이크, 이스탄불 하기아 소피아

돌아왔음을 나타낸다. 뒤러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그곳이 화가들이 단순한 장인(匠人)이 아니라 지성과 창조성이 결합된 예술가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데에 큰 인상을 받았다. 이 초상화에서 그는 자신 또한 창조를 하는 지성인임을 당당히 보여주고자 했다.

2년 뒤 28세의 나이에 그린 또 한 점의 자화상은 그의 대표적인 초상화인 동시에, 가장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시기 사람들은 28세를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나이라고 보았고, 29번째 생일을 얼마 앞두고 제작된 이 자화상은 뒤러 자신이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기념한다. 이전의 초상화에서는 유행하는 의상을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여기에서는 모피를 깃에 덧댄 외투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 넣었다. 이는 당시 다른 명사들의 초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유행하는 의상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모피를 입어 뒤러는 자신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성공했음을 드러냈다.

자세를 보더라도 이전의 자화상처럼 르네상스 시기

널리 쓰인 몸을 약간 돌린 3/4 구도를 사용하지 않고, 정면상을 택했다. 이는 북유럽 르네상스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하던 구도인데, 비잔틴 미술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도상에서 유래한다.

여기에서 뒤러는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고, 양갈래로 내려오는 머리카락과 수염이 거의 대칭을 이루고 있어 비잔틴 미술의 그리스도의 매우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가슴 중앙께로 가져간 오른 손은 그리스도가 축복을 내리는 자세를 연상시킨다. 이를 통해 뒤러는 신에게서 받은 재능을 인식한 젊고 야심찬 예술가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었다. 전체적으로 갈색과 검은색으로 어두운 그림에서 빛을 받아 두드러지는 가늘고 섬세한 손은 창조자로서의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 장인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던 북유럽에서 뒤러는 창조자로서의 화가의 모습을 자화상을 통해 당당히 웅변한다. 그리고 그의 위엄 있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그 힘을 잃지 않고 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빛내는 숨은 주역들

하우스 가이드

공연을 즐기는,
좋아하는 관객 여러분~!
가이드들에게
수고했다는 따뜻한
한마디 건네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우스 가이드와 대화를 나눠 봤다.

하우스 가이드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이라면 누구나 거쳐 가야 할 관문인 공연장 입장을 도와주는 도우미다.

티켓을 발권 또는 수령한 후 입장시간이 되어 입장 할 때 각각의 입장문 앞에 서서 티켓을 끊어주고 주의사항 및 편안한 관람이 되시라고 웃으며 인사하는 그들. 때로는 관객과 실랑이를 벌여야하고 극장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을 처리하며, 물품 보관소에 고객들의 물건도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소화한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들이다. 다소 옛된 외모로 반듯하게 서서 환한 미소로 응대하는 하우스 가이드들의 일과를 파헤쳐 보자. 인터뷰에 응해준 두 명의 가이드(손향아, 최아현)들은 대부분 대학생들로 구성된 가이드들 중에서도 4학년 휴학중인 근무한지 꽤 오래된 고참이었다.

❖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두 명 다 이전에 거쳐 간 하우스 선배 가이드의 추천으로 들어왔다. 보통 대학생들은 편의점, 고깃집, 호프집 등 다양한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공연장 하우스 가이드는 다소 생소했고, 선배 가이드의 말을 들어보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다.

❖ 근무 시간은?

학교 수업과 병행하여 일을 하다보니 돌아가면서 공연장 근무를 하게 되는데, 보통 1주일에 3~4회라고 한다. 요즘처럼 주말공연이 많으면 더 나온단다.

❖ 가이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사람을 응대하는 일이 가장 조심스럽다보니 말투와 표정 그리고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가이드 지침서를 꼼꼼히 시간 날 때 읽어보고 숙지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며, 근무투입 전 가글과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살피는 것 또한 빠지지 않는 일과 중의 하나라고 했다.

❖ 다른 아르바이트 일과 지금 하는 일과의 차이점은?

책임감. 다른 아르바이트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우선 울산문화예술회관도 관공서이다 보니 좀 더 쾌적하고, 관람하는 관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뛰어야 한다는 주인의식이 있어야만 이 일을 잘 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아르바이트도 물론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다. 여기서 무단 결근은 있을 수 없는 일. 요즘 젊은 학생들과 다른 모습이 느껴진다.

❖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은?

두 명 다 이구동성으로 공연관람 마치고 관객들이 나오면서 '재미있게 잘 봤다.' '수고했어요. 고생하시네요.' 그 한마디 들었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낀단다. 참 소박하다. 무심코 또는 인사치레로 한마디 던진 관객의 그 한마디가 이들에게 주는 영향이란...

❖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막무가내인 관객을 응대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한다. 특히



나 아이들 공연, 입장 나이에 제한이 있는 아이들 공연이 있는 날이면 초긴장 상태란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애들과 달라서 공연 잘 본다.' '우리 애는 또래보다 커서 괜찮다' 등등 줄은 밀려있고, 막무가내식 관객을 대할 땐 정말 울고 싶을 정도라고... 화가 나서 흥분 한 관객 응대도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 하지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항상 미소를 지어야하는 이들의 고생도 만만치가 않다.

❖ 관객의 입장으로 다른 공연장에서 공연 본 적은?

있다. 아니 많다고 했다. 꼭 보고 싶은 공연이 있으면 부산에 가서도 본다고... 직업병인건지 가면 제일 먼저 가이드들 상태부터 본다고 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자신들이 근무하는 이곳 울산문화예술회관의 가이드들이 역시 친절 교육 하나는 잘 되었다라는...

❖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다보니 졸업 후 취업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면?

주변 지인들에게 꼭 추천한다고 했다. 이 일은 매력 있다. 사실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도 좀 쎄다고 말하는 솔직한 이들. 하지만 돈 보다도 항상 새로운 일과 마주하는게 좋단다. 공연 장르도 항상 변하고, 대상도 다르고, 새로운 기분이 들어서 강추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1순위란다.

인터뷰를 마치고, 이들의 모습을 보니 유니폼, 명찰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비록 아직은 사회생활의 때가 묻지 않은 학생의 신분들이지만, 울산 문화의 첨병 역할을 하는 하우스 가이드. 나 자신 또한, 공연장을 드나들면서 이들을 홀대할 적은 없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본다.

글 | 권혁민(울산시립예술단 홍보 및 마츠프렌드 기자)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찾아가는 예술단

2 0 1 2
L O V E &
H A P P Y



울주군 웅촌면 수연특수아어린이집



북구 엘림요양원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울주군 상북면 향산초등학교

○ 공연신청 안내

신청대상 : 시민 누구나

신청기간 : 수시(원활한 공연 추진을 위하여
1개월 전에 신청)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접수 가능

· 신청서는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ucac.or.kr)에서 다운로드
("메인화면 => 관객을 직접 찾아가는 예술단 =>
서식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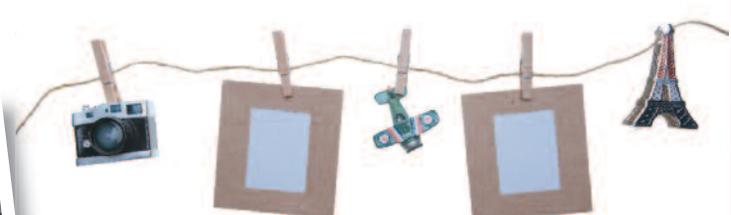
신청비용 : 무료

※ 공연장소에 따라 무대장치 및 음향장비가 필
요한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공연문의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T. 052-226-8278)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불가능한 경우)

- 시립예술단 공연 일정과 중복되는 경우
- 특정인의 개인 행사(결혼, 회갑연 등)
- 특정단체의 특정목적 행사(종교 집회 등)
- 사기업의 영리추구 목적의 행사
- 초·중·고등학교 축제행사
- 기타 공익에 위배되는 행사



북구 태연재활원



북구 달천고등학교



중구 헤인학교(특수학교)



현대중공업 산업현장



울주군 범서읍 명지초등학교



울주군 북구 매곡초등학교

울산문화예술회관은 2004년부터 여러 가지 여건상 공연장을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이나 학교, 복지시설, 기업체, 공공장소 등에 시립예술단이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합창단이 함께 하고 있으며, 공연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품이나 클래식, 합창, 한국무용 및 국악 등을 방문지의 성격과 특성 등에 맞게 재구성한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친다. 매년 100회 내외의 공연을 펼치고 있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은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공연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

글 | 김내영(울산시립예술단 홍보 및 아트프렌즈 기자)

톡! 톡! 톡!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안내된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으로 공연 티켓도 받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일석이조!

지난 4월 26일(목)에 있었던 『모닝콘서트_One Dollar』공연 감상평을 작성하여 5월 6일(일) 해외초청작 『칼로니 이발사』티켓을 획득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 **최준식** | 울주군 범서읍

음악을 좋아해서 문예회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즐겨 들었는데, 자영업을 하기에 저녁에만 회관을 찾다가 올해는 모닝콘서트 연간 계획표를 보면서 '참 좋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첫 공연 "봄이 오는 소리"에 다녀왔다. 공연을 관람하고 정말 마음속에 봄이 오는 듯 기쁨이 가득하다. 감사합니다.

● **문형숙** | 남구 옥동

따뜻한 햇살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음악과 좀 더 친숙해지고 싶은 마음에 바쁜 일정을 제쳐놓고 모닝콘서트를 예약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 평소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갔기에 지루해하시면 어쩌나 하고 조금은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의 공연은 세대를 불문하고 관객들의 관심을 잘 이끌어 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다음에 이런 공연이 있거든 또 신청해 달라고 하십니다^^ 공연을 주최해 주신 분들 덕분에 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였습니다.

● **조나영** | 동구 방어동

오전에 콘서트를 관람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여 예매하였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학창시절로 돌아가 나도 모르게 어깨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면서 콘서트에 푹~ 빠졌답니다. 나름 비슷한 연배의 아줌마들이 관중이어서 더 즐거움에 동참하기 쉬웠나 싶기도 하네요. 브런치로 차와 쿠키를 제공해주시니 더욱 좋았구요. 바쁜 일상에서 탈출하여 콘서트를 통해 여유와 행복감, 충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주 이런 즐거움을 맛보고 싶네요~

● **최은선** | 동구 전하동

2012 모닝콘서트 패키지를 예매할 때 혼자 공연을 본다는 점과 다소 지루할 것 같은 선입견으로 고민을 했다. 하지만 첫번째 모닝콘서트를 관람하고 완전 반해버렸다. ㅋ 한달 후 두번째 공연, 역시 다른 말 필요없이 좋았다~ 매번 다른 컨셉으로 관객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해주는 것 같다. 예전의 나는 뮤지컬 위주로 공연을 관람했는데, 모닝콘서트 두 번의 공연을 통해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어 또한 좋았다. 앞으로 남은 8번의 공연 역시 참 기대된다~ 턱없이 착한 가격으로 공연을 제공해 주시는 점 또한 매우 감사하다^^

● **우혜영** | 중구 남외동

맑은 봄날이라기엔 바람이 제법 부는 날이었죠? 친구랑 매달 모닝콘서트 가기로 하고 두번째 였어요. 원달러- 감동적인 'You raise me up'로 시작해서 계속 감동이었어요. 메인보컬 명노경, 테너 이재훈, 테너 이한샘, 바리톤 김충만, 베이스 심태호-다시 한번 이름도 찾아봤어요. 공연시간인 참 짧게 느껴졌어요. 객석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신나게 박수치는 공연은 오랜만이었어요.

● **강성미** | 경주시 양남면

작년부터 모닝콘서트 열혈팬이 된 사람입니다^^ 저녁엔 남편이나 애들 때문에 제대로 된 공연을 볼 수 없어 늘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평일 오전에 특별한(!) 금액으로 알찬 공연을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하는 1인입니다. 원달러 공연은 유머와 감동이 동시에 전해진 공연이었습니다. 첫 곡이었던 'You raise me up'을 들을 때부터 온 몸에 전율이 전해져 왔습니다. 남은 모닝 콘서트도 전부 예매해봤는데,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즐거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을까, 매달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을 거 같네요.

● **오정화** | 동구 동부동

마음의 바람을 쐬고자 가까운 지인들과 가볍게 찾은 공연이었습니다. 원달러 첫무대를 1부로 열며 마지막 앵콜곡 마징가z 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흡수력 높고 활력소가 된 아름답고 신났던 공연이었습니다. 같이 간 지인들에게 고맙단 말까지 들으니 더욱 기분 좋고 흐뭇했네요^^

● **하승희** | 동구 서부동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준비하고 예술회관으로 출발~! 남성 코믹 아카펠라공연이라고 해서 어떨까 궁금해 하며 공연을 관람했는데 완전 배꼽 빠지는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일반 클래식공연과 달리 맘껏 함성 지르고 손뼉치고 하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정말 좋았어요~ 모닝콘서트는 오전 11시에 공연을 하니 아이 신경쓸 거 없이 맘 편히 관람할 수 있다는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게다가 공연의 질도 좋구요~ 별 생각 없이 끊었던 모닝콘서트패키지가 이렇게 한 달의 활력소가 될지 몰랐네요.

울산문화예술회관 페이스북 트위터는 어떤 콘텐츠가 있나요?



이벤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울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Museum Saturday Concert』

- 주 제: 박물관 개관 1주년 열린 예술무대
 - 일 시: 2011. 6. 23(토) 오후 2시
 - 장 소: 울산박물관 1층 로비
 - 문 의: 052) 226-8278
- ※ 본 공연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설무대로 매주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 팔로우나, 페이스북(ID:Ulsanartcenter) 친구신청을 하시면 추천해서 공연관람권이 쏟아집니다!!
공연정보도 확인하고 & 공짜 티켓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참 쉽죠잉~

Arts Friend

공연·전시가이드

PERFORMANCE

제10회 울산 어린이 합창페스티벌

일 시 | 6. 1(금)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국제와이즈멘 울산클럽

■ 공연개요
 제10회 울산 어린이 합창페스티벌

- 프로그램
- 1부 : 5개 합창단이 단별로 2곡씩 공연
 - 2부 : 5개 합창단이 단별로 2곡씩 공연

제4회 오퍼스 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6. 2(토)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오퍼스 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자기개발과 성취기를 경험하고 취미 뿐만 아니라 전공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연주

- 프로그램
- The Hebrides, overture in b minor for orchestra, Op.26, "Fingal's Cave"
 - Mozart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622 제1악장
 - 인생의 회전목마, Valse NO.2 Go West
 - Hungarian Dance 1, 5, Slavonic Dance NO.8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도깨비 소동"

일 시 | 6. 2(토) 11:00 14:00 16:30
 6. 3(일) 11:00 14:00 16: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5,000
 주 최 | 동그라미그리기

■ 공연개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인기 애니메이션 "뽀로로"를 노래와 안무, 배운 연기를 통해 뮤지컬로 제작

- 프로그램
- 뽀로로와 친구들은 에디의 비행기를 보며 노래를 못부르는 도깨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어느 순간 크롱의 장난감 자동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고, 포비의 방귀는 멈출 줄 모르고, 에디의 이상한 로봇춤이 계속 되는데..

가족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일 시 | 6. 6(수) 11:00 14:00 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5,000
 주 최 | 극단 예인

- 공연개요
- 두더지는 자기 머리에 떨어진 똥이 누구의 것인지 알기 위해 여러 동물들에게 "내가 내 머리에 똥 썼지?" 하고 묻는다.
 - 두더지가 여러 동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동물들의 생김새와 똥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다. "내가 내 머리에 똥 썼지?" 하는 말이 반복되면서 어린이들을 즐겁게 한다.

- 프로그램
- 두더지에게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 어느 날, 해가 났나 안 났나 궁금해진 꼬마 두더지 하나가 머리를 땅 위로 내미는 순간, 똥 두더지가 머리에 떨어진다. 화가 난 두더지는 누가 자기 머리에 똥을 썼는지 찾으러 길을 나서는데 과연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있을까?

제15회 울산무용제

일 시 | 6. 9(토) 17:00
 6. 10(일) 17: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사)한국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공연개요
 울산 무용인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창작 의욕 고취와 제21회 전국무용제에 나갈 울산대표팀 선정을 위한 예선

- 프로그램
- 김외섭 무용단
 - 김정숙 무용단
 - 박선영 무용단
 - 노경덕 무용단

제2회 남미경의 시노래콘서트

일 시 | 6. 12(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
 주 최 | 울산사랑시노래회

■ 공연개요
 울산을 주제로 한 시노래 음악회

- 프로그램
- 사랑하면 보인다
 - 사과꽃 피는 저녁
 - 바다가 보이는 교실
 - 신불산 역새발을 지나며, 어머니의 고래 외 다수

위드아트 정기연주회

일 시 | 6. 13(수) 20: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000
 주 최 | 위드아트

■ 공연개요
 테너 이석종이 제자들과 함께 꾸미는 아름다운 무대

- 프로그램
- 이태리 가곡 6곡,
 - 독일 가곡 6곡
 - Popular music 6곡

김다정 첼로 귀국독주회

일 시 | 6. 14(목)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김다정

■ 공연개요
 독일유학을 마친 첼리스트 김다정의 귀국 독주회

- 프로그램
- Beethoven cello sonata in D Major, Op102
 - Variationen ueber ein slowakisches thema
 - Sachor Variations by Witold Lutoslawski 외 다수

요한스트라우스 오페라 "박쥐"

일 시 | 6. 15(금) 20: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 100,000 R 50,000
 S 30,000 A 20,000
 주 최 | 울산문화방송(주)

■ 공연개요
 요한 스트라우스 오페라 "박쥐"

- 프로그램
- 알츠의 황제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오페라 "박쥐"는 바람둥이 아이젠슈타인과 그의 부인 로잘린, 하녀인 아델레, 그리고 로잘린데의 정부 알프레드 등 등장인물들이 얽히고 얽히면서 벌어지는 하룻밤 동안의 해프닝을 그린 재미있는 작품

이바디 울산콘서트

일 시 | 6. 15(금) 20: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R 40,000 S 30,000
 주 최 | (사)열린문화협회

■ 공연개요
 자유로운 감성의 재즈그룹 이바디의 울산공연

제9회 울산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6. 16(토) 18: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울산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의 제9회 정기공연

- 프로그램
- Blue Sky March
 - A Carmen Suite
 - Persis, Weber clarinet concert 등 다수

울산 남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일 시 | 6. 16(토)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남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 공연개요
 청소년 협주곡 연주회



※ 전시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 비엔야브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 베버 클라리넷 협주 1번 3악장
-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1악장
- 슈만 첼로협주곡 3악장
-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등 다수

제18회 락당 정기공연 "통일아리랑"

일 시 | 6. 17(일) 17: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
 주 최 | 락당예술단

■ 공연개요

창작음악, 창작무용 등으로 구성되어 남과 북의 문화교류 차원의 공연

■ 프로그램

- 오프닝(대북춤 및 비보이, 한국무용)
- 한국무용 창작공연
- 울산12경을 배경으로한 음악
- 평양민속예술단 공연 외 다수

심현지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6. 17(일) 18: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심현지

■ 공연개요

심현지 피아노 독주회

■ 프로그램

- Rondo in A minor, K.V.511(W.A.Mozart)
- Butterflies&Bobcats(David L. McIntyre)
- Fifteen Variations with Fugue in E0flat major, Op.35(L.v.Beethoven)

울산CBS창립 8주년 기념

"펠릭스헬 내한공연"

일 시 | 6. 19(화)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주 최 | 울산CBS

■ 공연개요

울산CBS 창립 8주년 기념 독일출신 세계적 오르가니스트 펠릭스 헬 초청공연

경남은행 창립 42주년 기념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일 시 | 6. 20(수)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주 최 | 경남은행

■ 공연개요

경남은행 창립 42주년 기념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 프로그램

- 올게 하소서, 나의 다정한 여인, 그대여 손을 주오, 눈, 신아리랑
- 보리밭, All I ask of you, 무정한 마음 외 다수

휴내음, 사람내음Ⅲ

일 시 | 6. 20(화)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박현성 국악연구소

■ 공연개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잊혀져가는 토속 민요를 전승 보급코자 함

■ 프로그램

- 12잡가 중 유산가, 경기민요
- 가야금 산조, 강령도 민요
- 창작무
- 울산 토속민요
- 타악 퍼포먼스 외 다수

가족뮤지컬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일 시 | 6. 22(금) 10:30 11:40
 6. 23(토) 11:00 14:00 16:00
 6. 24(일) 13:00 15: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0,000
 주 최 | 극단 화랑

■ 공연개요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깨끗해지는 신기한 엄마의 빨래통, 어지럽게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빨래 줄들, 먹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아기 도깨비, 그리고 도깨비를 빨아버리는 엄마 등 책으로만 접해왔던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무대 위에 펼쳐 놓고 관객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작품

■ 프로그램

- 제1장 : 빨래를 너무 좋아하는 우리 엄마
- 제2장 : 빨래 감을 찾아라
- 제3장 : 천둥번개 도깨비
- 제4장 :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 제5장 : 도깨비들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일 시 | 6. 23(토) 15:00 18: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 60,000 R 50,000
 주 최 | 쇼비보이(주)

■ 공연개요

고급예술인 발레와 대중예술인 힙합이 만나 화제를 모은 순수 창작 난버널 뮤지컬이자 세계인들이 가장 보고 싶은 공연작품으로 꼽히는 대한민국 대표작품

■ 프로그램

- 발레리나 연습실 거리에 힙합광장이 조성된다. 시끄러운 음악에 방해 받을 발레리나 소연은 거리의 춤꾼들과 충돌하게 되는데...
- 첫눈에 반하게 된 비보이 석윤에게 마음을 빼앗긴 소연은 자신의 간절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발레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소연은 프리마돈나의 꿈을 접고 길거리 댄서가 되어 석윤과 사랑을 이룬다

2012 울산 시민을 위한 야외 가족음악회

일 시 | 6. 23(토) 20:00
 장 소 |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한국음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공연개요

야외오페라 마술피리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는 레파토리로 구성

■ 프로그램

- 마술피리

심수봉, 테너 류정필의 "THE SYMPHONY"

일 시 | 6. 24(일) 15:00 19:0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R 99,000 S 77,000
 주 최 | 울산문화방송(주)

■ 공연개요

울산 문화예술의 발전, 울산시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울산MBC가 특별기획한 문화콘서트

■ 프로그램

- 당신모습(with 슬아)
- 가을여인
- 그때 그사람
- 여자의 마음(리콜레토 중)
- 여자이니까
- 남몰래 흐르는 눈물(사랑의 묘약 중) 외 다수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6. 26(화) 20: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 장로합창단

■ 공연개요

울산 장로합창단 여덟번째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합창, 독창, 혼성합창 등

Arts Friend 공연·전시가이드

어린이 뮤지컬 “알라딘”

일 시 | 6. 27(수) 11:00 17:00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V 40,000 R 30,000 S 20,000
주 최 | 극단예일

■ 공연개요

뮤지컬 “알라딘” 은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천일야화 중 “알라딘과 요술램프” 를 주 내용으로 총 3막7장으로 구성. 노래와 춤이 어우러져 아이들이 가진 판타지를 생생하게 그려냄

■ 프로그램

무대는 사막의 아라비아 왕국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주인공 알라딘이 모험심 많은 용감한 소년으로 등장한다. 술탄 왕비의 아름다운 딸 “자스민 공주” 또한 모험심에 가득 찬 여성으로 등장하며 마법사 “지파” 가 탐욕과 계략으로 알라딘과 공주를 괴롭히며 아주 코믹한 인물로 등장한다. 램프요정 “지니” 는 알라딘의 도움으로 천 년간 갇혀있던 램프 안에서 해방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 알라딘이 곤경에 처했을 때마다 나타나서 구해준다.

정진경 첼로 귀국 독주회

일 시 | 6. 29(금) 19:3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정진경

■ 공연개요

미국유학을 마친 첼리스트 정진경의 귀국 독주회

■ 프로그램

- Beethoven Sonata
- Beahms Sonata
- intermission
- Shostakovich Sonata

2012 사랑의 음악회

일 시 | 6. 30(토) 19:30
장 소 |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0,000
주 최 | 울산 기독교 청년회

■ 공연개요

음악회 수입금 전액(백혈병, 심부염환자)/수술어린이 지원(당일 음악회 마지막 순서전)

■ 프로그램

- 클로리아 합창단
- 바이올린, 오르간 연주
- 바리톤 Solo
- 피아노 듀오
- 마린바 연주
- 극동어린이 합창단 등

2012 청소년 합창제 “Voice of Harmony”

일 시 | 6. 30(토) 16:00
장 소 |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주 최 | 울산광역시 소년소녀합창단

■ 공연개요

울산시민 및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공연 발전을 위한 합창공연

■ 프로그램

- 성가, 가곡
- 협주곡
- 일반명곡
- 가요, 뮤지컬 등

EXHIBITION

국제 목판화 페스티벌

기 간 | 6. 7(목)~6. 12(화), 6일간
장 소 | 제1,4전시장
주 최 | 울산제일일보사

■ 전시내용

울산제일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목판화협회가 주관하는 한·중·일 3개국 목판화 작가 70여명이 참가하는 전시로, 3개국의 문화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와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목판화 전시 추진

제6회 좋은 사람들전

기 간 | 6. 7(목)~6. 12(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좋은 사람들

■ 전시내용

좋은 사람들회 회원들의 연간 작품 활동을 통한 성과물로서 작가 개인들의 특성을 살린 한국화, 서양화, 조각, 문인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고 작품에 대한 발표 설명을 통해 회원 작가들 간의 이미지 제고 및 저변확대 기회로 삼고자 유화 수채화 작품 40여점 전시

울산 대한공예예술 회원전

기 간 | 6. 7(목)~6. 12(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대한공예예술연합회울산지부

■ 전시내용

생활의 가구와 소품에 세계의 민속예술 그림과 우리나라 민화와 현대화를 구성한 작품, 공예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포크아트, 닥종이, 천아트 등 다양한 작품 40여점 전시

제16회 울산광역시사진대전

기 간 | 6. 14(목)~6. 19(화), 6일간
장 소 | 제1,4전시장
주 최 | 울산사진작가협회

■ 전시내용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지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공모전으로 사진동호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지역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 하고자 순수창작, 기록창작, 응용창작 사진으로 구분 심사하여 대상, 우수상, 특선, 입선의 입상작품을 전시하며 초대, 추천작가 사진작품 등 총 120점 동시 전시

제4회 클래식 포크아트 공예전

기 간 | 6. 14(목)~6. 19(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클래식포크아트

■ 전시내용

독일 버말라이, 네덜란드 힌델루펜, 러시아 조스토브 지방 등 세계 여러나라의 포크아트 기법을 가구, 액자 등에 표현하며 핸드메이드 기법으로 만든 톨페인팅, 인형 등 창의적인 작품 50여점 전시

제2회 화실촌사람들 회원전

기 간 | 6. 14(목)~6. 19(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화실촌사람들

■ 전시내용

제2회 화실촌사람들 정기전으로 회원들의 친목도모 및 유화작품과 켈트, 조소 등 다양한 작품 20여점 전시

울산제일일보 보도사진전

기 간 | 6. 21(목)~6. 26(화), 6일간
장 소 | 제2전시장
주 최 | 울산제일일보사

■ 전시내용

울산제일일보 신문사 사진부 기자들이 1년여 동안 울산의 자연, 문화, 축제, 민속, 레저 등 울산을 직접 보고 느낀 사진들을 취재하여 활용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울산의 현장 소식을 지면으로 보도한 사진작품 총 50점 전시

울산 켈트작가회 정기전

기 간 | 6. 21(목)~6. 26(화), 6일간
장 소 | 제3전시장
주 최 | 울산켈트작가회

■ 전시내용

한국의 전통적인 고전미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까지 다양한 기법과 구성으로 표현한 아트켈트 작품 전시로, 한국적이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세계속의 한국의 시간여행을 켈트로 표현한 작품 총 30점 전시

제2회 정원섭 사진전

기 간 | 6. 21(목)~6. 26(화), 6일간
장 소 | 제4전시장
주 최 | 정원섭

■ 전시내용

꾸준한 사진 활동을 통해 지역 사진가들과 같이 공유하고 평가 받음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 하고자 ‘새로운 시각전’이란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을 마련하여 사진작품 총 50점 전시

제17회 아름다운 눈빛 미술제

기 간 | 6. 28(목)~7. 3(화), 6일간
장 소 | 제1,2,3,4전시장
주 최 | 울산미술협회

■ 전시내용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순수 아마추어 미술 동호인들의 작품 전시로, 문화교실, 동호회, 단체, 개인이 참여하며 서양화, 한국화, 공예 등 다양한 미술작품 500점 전시

당신의 불링불링한 Art 스타일을 완성!

문예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풍성한 혜택'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회원의 종류

구 분	가입기준	연 회비	수혜인원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2인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10,000원	1인
가족회원	한 가족	40,000원	4인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인 이상)	10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가입인원

※ 청소년회원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상 나이 확인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여야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회원가입할 때 납부

- 인터넷 가입 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회원가입비(문화예술회관)
-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시 30% 할인
(일반회원 2매, 청소년회원 1매, 가족회원 4매, 단체회원은 본인에 한함)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아트 클래스 등록 시 30% 할인
- 울산문화예술회관 주최 초대공연 시 초대권 우송
- 회원을 위한 음악회 개최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할인혜택 부여(일부 대관공연 제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세요!

빠른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공연관람권이 쏟아집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